

## 새해 인사 말씀(新年辭)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60만 현종(賢宗)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의 행운 그리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3년간의 막중한 대종회장직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으로 대과없이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나간 기억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오래동안 있고 지냈던 과거의 시간속으로 저는 빠져 들고 있는 것입니다.

속삭이는 제 노래와 이야기는 바람 속에 들려오는 여신의 휘파람처럼 가냘픈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움으로 인한 제 회한의 눈물은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워지게 함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빛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빛 실은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않지만, 그 안에는 빨간 빛, 주황 빛, 노란 빛, 초록 빛, 파랑 빛, 남빛, 보라빛의 모든 색깔이 들어있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외선(紫外線)과 적외선(赤外線)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제 안에서는 빛만 빠져 나가겠지만 그 빛 안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 전생(前世)의 모든 것이 들어 있

## 辛卯年

을 것입니다. 제 무의식(無意識) 안으로 들어가면 감정의 운운 속에 빠져 오르는 정감이 보다 강해지고 보다 부드러워지면서 결국에 빛이 될것입니다.

누구든지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 합니다. 어느 사이에 나이가 들고 이만큼 늙어 왔었다 보면 한 번쯤은 지나온 자신과 삶을 회상하고 무언가 남기고 싶은 생각에 찾아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뜻을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끝 자기 뜻을 펴기 위하여 산다고 대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뜻을 가장 효과적으로 펼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수행했을 때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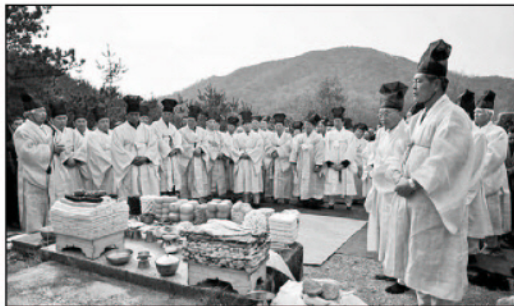
저는 반평생을 교육현장에서 성실한 꿈을 이루었고, 늦게 명문가족이라 자부할 수 있는 가문에서 송조부족(宗祖 髓族)라는 뜻을 가질수 있었으나 이제 저의 일생에서 더 이상 욕심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혼의 그늘에서 있는 지금은 항상 저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감사하며 살아 가려고 합니다.

힘겨울고 거친 일 노여울고 괴로운 일 하나뿐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동트는 희망찬 아침 햇살을 맞이 하렵니다.

서기 2011년 1월 庚寅元旦 安東金氏大宗會會長 金南應 올림

## 2010년(庚寅) 歲一祀 奉行



양조장을 운영하는 (眞)容世 대종회 이사는 제주용 약주를 보내주어 향사를 올릴 수 있었다. 총렬공 향사 전년에는 오후 7시부터 분경회의가 있었고 분경이 끝난 후 총렬공 상계 6대에 대한 歲一祀를 올렸다. 총렬공 상계 6대에 대한 歲一祀는 오래전부터 의논되어 왔으나 이번엔 실행하였으며 6대 모든 묘소를 失傳한 관계로 飲水齋에서 紙榜(紙)로 하였고 처음 올리는 歲一祀인 관계로 祝文(은 올리지 아니하고 (都)昌會 대종회회회장 겸 도림의공과종회장이 지은 告由文(내용 2면게제)을 올렸다. 상계 6대의 歲一祀는 앞으로 매년 봉행할 것이다. 이번 歲一祀 粉定은 아래와 같다.

지나해 11월 14일(음 10월 9일) 2010년(庚寅年) 忠烈公 考妣 歲一祀가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소재 총렬공 묘소와 풍산읍 회곡리 소재 냉평곡 대부인 할머님 단소에서 300여 명의 후손이 참여한 가운데 嚴肅히 奉行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향 각지에서 참여한 참제원들은 버스나 승용차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담 60여 명이 도착하였고 나머지 인원은 당일 시 정각부터 총렬공 향사를 올리고 음수재에서 점심식

사 후 회곡동 할머님 향사를 올렸다. 대종회에서 향사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참제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참석 인원이 많지는 않았다. 이날 향사는 전 참제원이 질서를 지켜주시고 안동시 종친회 부녀회원들이 협조해 주셔서 무난히 마칠수 있었고 담진 신령

### 上系6代

初獻官(提)南應 大宗會會長  
亞獻官(提)潤應 大宗會 顧問  
修獻官(副)在殷  
前 副使公派宗會會長

### 忠烈公

初獻官(都)昌會  
亞獻官(提)俊會  
修獻官(文)光道  
陳設(眞)成植  
大祝(提)相天  
贊引(按)瓊會  
贊引(典)壽教  
奉香(按)漢平  
奉進(郡)漢榮  
司簿(提)泰鍊  
大祝(都)漢洙  
贊引(典)壽教  
贊引(眞)在永  
贊引(按)漢萬  
時到(眞)萬吉  
直日(提)潤應

### 冷平國大夫

初獻官(提)相天  
亞獻官(眞)漢洙  
修獻官(按)瓊會  
陳設(眞)漢輝  
大祝(都)漢洙  
贊引(典)壽教  
贊引(按)漢萬  
기타는 총렬공과 같다.

## <공고> 제44회 정기총회 개최

2011년도 안동김씨 대종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종친 여러분께서는 인근 종친과 상호연락하시어 대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1년 3월 24일(목) 오전 11시

▶장소: 백범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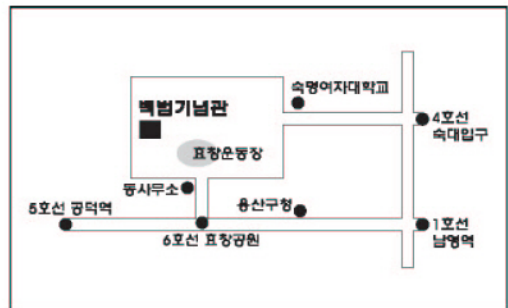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에)

▶전화: (02)739-3421

▶당일회비: 30,000원

▶회의안건

- (1) 2010년도 회계결산 승인
- (2)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 (3) 2011년도 사업계획승인
- (4) 기타사항



# 安東金氏始祖平章事府君告由文

恭唯府君 敬順令孫 公손히 생각컨대 할아버지는 경순왕의 출품한 손자였네  
 始封安東 大安賢胤 비로소 안동의 관향을 얻었으니 대안군의 어지신 아드님이라  
 任至平章 麗室名臣 벼슬은 평장사에 이르렀고 고려조의 이름난 신하라네  
 上自始祖 下至來孫 위로는 시조 할아버지부터 아래로 5세손에 이르기까지  
 勳業積德 幽潛莫關 공훈과 덕망과 업적들이 잠기고 묻혀 나타나지 않네  
 世遠經變 墳塋失傳 세상은 멀어지고 난리를 겪어 묘소 계신 곳을 잃어버렸네  
 遽然歲月 豈勝痛恨 세월은 거연히도 흘렀으니 어찌 슬프고 한스럽지 않겠는가  
 自先父祖 因循遷延 선대 할아버지들께서 인순하는 사이에 천연 하였네  
 追遠感慕 日夜不忘 조상을 사모하는 느껴운 마음 받냈으로 있을 수가 없었도다  
 罪莫大焉 雲仍無誠 그 죄책 얼마나 클까 먼 후손들 성의없는 탓일세  
 設壇未遑 不勝感憤 설단을 하려다가 겨를이 없어서 감창한 마음 한량이 없습니  
 庚寅霜露 依紙煙香 경인년의 서리가 내리는 계절 지방을 뒤흠고 향불을 피웁니다  
 從自永世 報祀無替 지금부터 영구한 세월 빠지지 않고 제사 올리겠습니다.  
 脯果清酌 紙薦歲事 포와 과일 맑은 술잔으로 공경스럽게 제사를 드립니다  
 伏惟尊靈 庶幾歆佑 업드려 생각컨대 존령이시어 내리시어 흥황하시기 바라나이다.  
 尚 饗

## 안렴사공파 내판중중 합동묘역 준공 및 세향봉행



▲묘원입구 표석

지난해 11월 7일(음 10월 2일) 충북 청원군 남이면 상빌리.팍봉리일원에서 안렴사공파 진사공 종회(내판.봉기중중) 묘역준공식과 庚寅年 歲事이 봉행되었다. 이날 준공된 묘역 조성 경위는 아래와 같다

山紫水瀾한 忠北 淸原郡 南二面 上鉢里 산16-1에 모셔진 成均進士 김의(金縵)公(1490~1538)은 高麗末 忠臣 不事二君 杜門洞 72賢의 한 분이신 安東金氏 按廉使公 派派相이신 士廉公의 五代孫으로 中宗朝 때 靜庵 趙光祖선생의 弟子였다. 己卯土禍(1519년)가 일어나자, 進士公께서는 鷄籠山의 글자라던 飛鳳

歸隱形의 明堂터, 錦江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 忠南 燕岐郡 錦南面 鳳起里(옛 公州, 明灘)로 隱遁하시어 五百餘年間 後孫들이 平和롭게 살수 있는 터전, 世居地를 이룩하셨다.

祖上 代代로 살아온 世居地인 鳳起先塋이 2006년 國家大事業인 世宗市 建設로

國家에 收用되어 親戚戚들은 여러 곳으로 뿔뿔히 흩어지게 되고 先祖任들을 모실 곳이 여의치 않게 되자 平素 爲先事業에 앞

장서서 率先垂範하는 16代孫인 泰龍會長은 先祖님들께서 永眠하실 先塋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數十 곳의 山을 踏査하여 刻碑의 努力 끝에 마침내 忠北 淸原郡 南二面 上鉢里 산16-1 林野 6천여평과 附近 八峯里에 林野 9천여평, 및 位田畝를 마련하고, 安東金氏 進士公派 內板門中 愷會會長, 鳳起門中 一成(흥복)會長, 慶會總務등 直系宗親들과 함께 至極精誠을 다하여 墓苑을 造成하여 18代祖 이하 數十基의 先祖任들의 墓所를 遷葬하고 아울러 같은 先山에 모셔져 있던 두 분의 宣略將軍(諱 謹祖, 球祖)묘역 부근의 壬辰倭亂 當時의 殉國하신 無名勇士 墓所 二十餘基를 發掘하여 合同墓를 만들어 모시고 冥福을 받아드린 것이다.

<진사공종회 제공>



▲조성된 묘원 전경

## 희민사(希閔祠) 준공



▲준공식 장면



▲도담공원의 전적비

2010년 11월13일 진천군 진천을 행정리에서 희민사 준공식과 위패봉안식을 유영훈 진천 군수, 이규창 진천군 의회 의장 등 각급 단체장과 진천유림을 비롯하여 안동김씨 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희민사에는 안렴사공(諱士廉)의 6대손 좌찬성공 金孝憲 선생과 7대손 정랑공 金通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이날 회의 진행은 좌찬성공종회 김재복 회장의 감사패 전달과 신용현 희민사추진위원장의

식사, 김영만 안동김씨대종회부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진천군수, 진천군 의회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희민사 창건사 제막, 희민사 삼문과 본당의 현판제막식을 끝내고 위패봉안고유제를 지내고 피로연을 가졌다. 김효건 선생은 2006년 11월 14일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잣고개의 도담공원에 임진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다수의 왜적을 포살한 공로에 대한 전적비를 건립하여 보존하고 있다

<좌찬성종회 제공>

## 香田園藝

### 경조화환 · 화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1481  
 TEL : 02-445-9777, 6888,  
 02-783-3166  
 FAX : 02-445-6999  
 H.P : 011-395-5327

농장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전승리 517번지  
 TEL : 043-532-5674

대표 김재균

### \* 人物紹介 \*



金泰完씨(65, 法名 法赫)는 제막공파의 후손으로 천안에서 태어나 현재 (사민族統一佛敎中央協議會 議長

으로써 전국 불제자들에게 尼姓成佛 의식의 布敎활동은 물론 및 石槌章을 수여받은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常任委員'으로 임명 받은 등 폭넓은 사회활동으로 國民勳章 木蓮章 章 石槌章을 수여받은 민음식스럽고 성실한 현종이기에 소개합니다.

특히 종친간의 친화력이 돋보이고 승조사상에 남다른 면모를 발휘하여 1554년 천안에서 출생하신 흥부공 김시인 장군의 입진왜란 당시

경남 병마절도사 겸 진주목 사로서 진주성 방어에 전력하여 해군 3천명을 격퇴시키어 입란 3대칭의 영웅이신 장군의 銅像을 천안에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본부장을 맡아 각계 각층의 동참과 협조를 구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천안환 피격증계기로 해군본부에 '김시인 장군' 號名 制定 請願을 요청한 바, 해군 참모총장으로

부터 '해군은 500톤급 이상 함정에 대해 개별 艦名을 붙여주고 있으며 함정 건조전에 동일 유형의 함정별로 함명 제정기준과 함명을 정하고, 함정 진수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김시인 장군의 살신보국의 호국정신과 훌륭한 업적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건조되고 있는 주요 함정은 제정기준에 따라 이미 함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 확보할 함정의 함명 제정 검토시 제

정기준을 고려하여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

다. 모든 종인들께서는 밤헤스님의 이러한 활약상에 큰 힘을 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후손 모두에게 승조보은의 크나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즐입니다.

法赫스님  
연락처 010-5457-0815

## 2010년 안동김씨 홈페이지 운영 평가회 및 송년회



▲대중회장님 인사말씀

지난 2010년 12월 17일 (금) 오후 7시에에는 대중회 연간 계획에 의하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한 음식점(주주육)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평가회를 겸한 송년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남용 대중회장님, 봉회(도) 대중회부회장님, 상호 전 서운관정공파회장님, 광도 문운공파 종손님, 재영(익) 문영공파회 부회장님, 그리고 인사연 및 홈페이지 애호가

등 모두 14인이 참석했는데 멀리 대구와 청주에서 정중남(도)과 주희남(안)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홈페이지 관리자(항용, 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남용 대중회장은 인사말씀 통해 우리 홈페이지가 최근 10여 년 간에 걸쳐 커다란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문종회가 큰 발전을 이루게 된 데 대해 공로를 높이 치하하시고 아울러 본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하겠다. 이어 2009년 평가회에서 논의되었던 홈페이지 활동 우수자 시상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2개 부분의 수상자 4명에게 기념패를 전달하였는데 정중남(도)은 2개 부분에 모두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

였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게시관 게시불 부문〉 : \*대상-김정중(도) \*우수상-김상석(제)

〈홈페이지 게시관 댓글 부문〉 : \*대상-김정중(도) \*우수상-김종태(익)

이어서 관리자(항용, 제)를 통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를 하였는데 먼저 우수점으로는 국내 문종 사이트 가운데 분량면적과 내용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는 인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에 의한 신자료 발굴에 힘입었음을 발표하고, 특히 게시관 운영에 있어서 격 높은 내용과 별량 댓글이나 별량 광고, 스펀 게시불 등이 없는 '무공해 게시관'임을 자랑하였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홈 자도 무단 복사 및 전체 금지 장치, 스펀 관

고와 댓글 접속 불가장치, 게시불 접속수입의 조차 금지 장치 등을 설치했음과 현재 홈페이지 게시관 회원으로 총 417명(2010. 12. 13. 현재)이 가입되어 있음을 발표하고 더 많은 이들의 가입 정보를 당부하였다. 부족한 점으로는 아직도 6개파(개성운공파, 전서공파, 부사공파, 안정공파, 관심사공파, 서운관정공파)외 파종회 소개 부분이 원고 미제공으로 인해 공란 상태이며, 〈지역 종친회〉는 3개(인천, 대구, 괴산)만 존재 되어 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홈 운영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접속자 수〉와 〈게시관 게시불수〉에 있어서는 2009년 12월 창설된 이후 2008년 말에 접속자수(1일 평균 223명), 게시불수(1일 평균 9명)에 있어서 최고점을 찍은 후 정점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아직 미운영중인 전자 쪽보방의 활용에 대해서는 대동보 제작의 선 작업 필요성 등을 제언했고 그 외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제 2부 송년회에서는 회장님의 송구영신 건배 제창과 함께 즐거운 식사와 정담을 이어갔는데 이날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무순).

\*남용(대중회장), 봉회(도,부회장), 상호(전 서운관정공파회장), 광도(문은공파종손), 재영(익,문영공파회 부회장), 영현(문,대종회의사), 윤철(제), 윤만(문), 향윤(제), 영윤(문), 우희(도), 정중(도), 영식(안), 주희(안), 상석(제)

(가나다순 제외) (관리자김정중,제)

## 지역종친회 소식

### 인천광역시종친회 송년의밤 행사



인천종친회 (회장 춘교)는 2010년 12월 4일(토) 오후 5시 장인웨딩홀 부에서 종친회의 80여 명과 흥식 대중회명예회장, 성희 전 부회장, 관북 전 사무총장, 태운 사무총장, 화성·수원 종친회 재남 회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2010년 송년의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춘교회장의 인사말과 흥식 명예회장,태운 사무총장,재남 회장의 축사에 이어 종친회 발전에 공이 큰 용진 종친에게 공로패와 부상

이 수여되었다. 이어 케이크 절단식이 있었으며 석식 후 노래자랑 등의 여흥 시간을 갖고 푸진한 상쯤을 증명하고 행사를 마쳤다. (인천종친회제공)

### 논산종친회 정기 총회



안동김씨 논산시 종친회 제23차 정기총회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2시 재회 회장님을 비롯한 2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시 삼월면 상도리 재택 종친택에서 개최되었다. 재회회장은 인사말에서 논산시 종친회가 단합하여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고 인사말씀이 끝난 후 임원개선이 들어가 선임의 장에 경수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재부 윤환, 감사 용희, 총부 재택은 유임하기로 하였다.

(논산시종친회 제공)

### 자랑스런 忠烈公 後裔



지난해 정부에서 시행한 제52회 사법고시에 인력사공 제 23대손 태희(克熙)가 최종합격하였다. 태희양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재원으로 인력사공파

희망공계 후손이며 祖父는 태수(泰洙) 父는 경희대학 병원 총부위과 과장인 의학 박사 범식(範植)의 둘째 딸이다.

(인력사공파 수석부회 대령 제공)

